

새 출발 여정 새날 새 희망을 꿈꾼다

태양이 선홍빛 고운 자태를 드러내자 파란 하늘엔 금빛 구름이 멈추었고
찰랑거리는 수면은 하늘빛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물새는 하늘과 바다
사이 공간을 미끄러져 날아갔다. 자연은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눈앞에 확연히 펼쳐 보였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 희망을
꿈꾸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 본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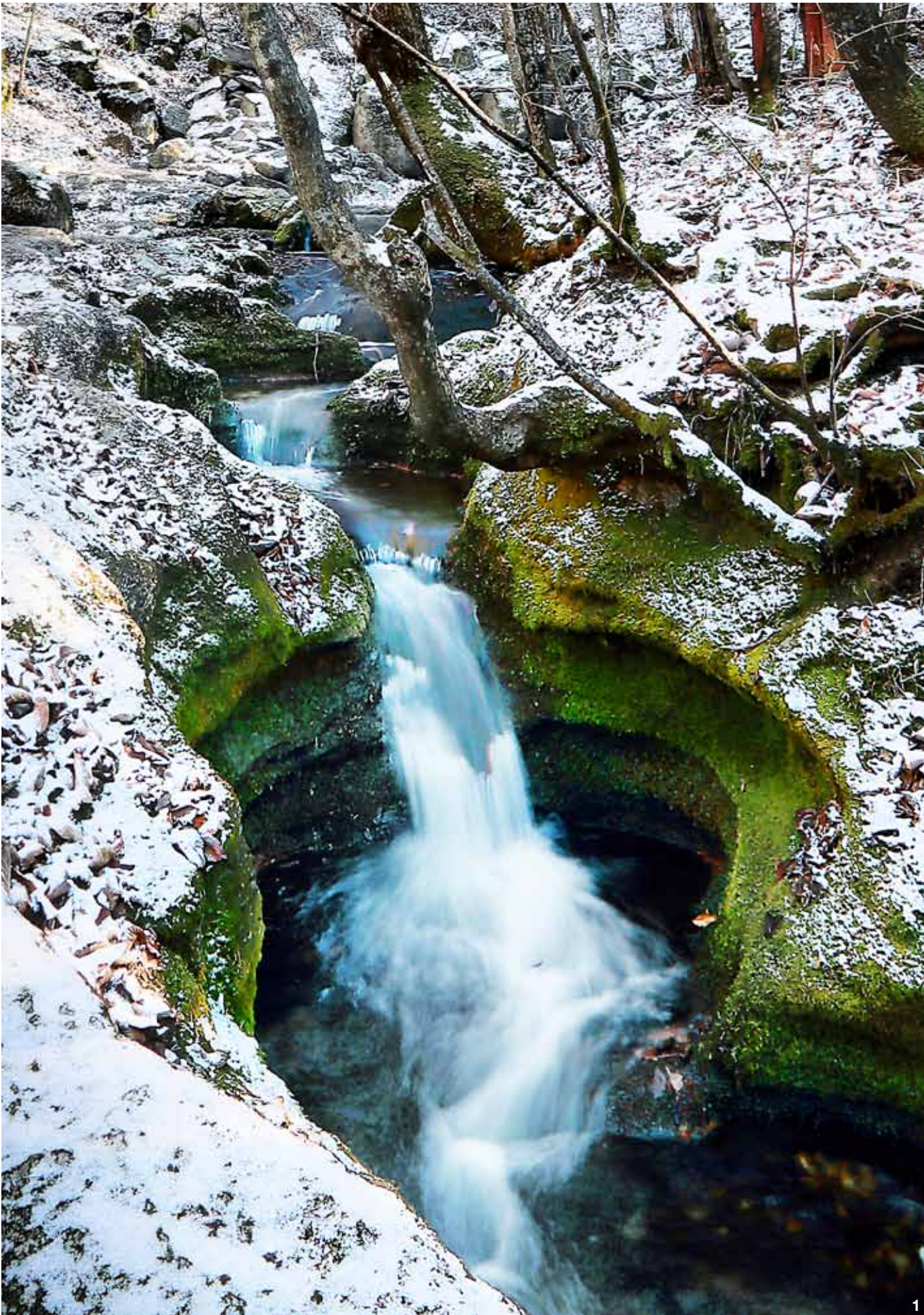


태백



순천





1검룡소에서 물이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고
있다. 2 눈 덮인 검룡소
주변 풍경. 3 검룡소
탐방로 입구 표지석.
4 탐방길 안내판.



「태백 생명의 줄기가 샘솟는 곳에서

한강과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계곡을 흘러내린
물줄기는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향하고
산과 들을 적시며 생명을 움트게 한다.

시간은 흘러 또 다른 새날을 향해 간다. 시간
의 줄기는 도대체 어디로 이어질까. 허탈과 분
노로 점철된 시간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 검룡소(儉
龍沼)를 찾았다. 검룡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
유히 흐르며 역사의 굴곡과 민족의 애환을 지
켜봤을 장대한 물줄기의 시발점이다.
검룡소로 향하는 길. 좁고 평탄한 길에는 간밤
에 흘린 눈이 숨을 뭉뚱뚱 뿜어 놓은 듯
군데군데 쌓였다. 오후 햇살이 온기를 느끼게
하는 날이지만 산과 나무의 그늘을 지날 때면
갑작스러운 한기가 어깨를 시리게 한다. 한여
름에도 선선한, 평균 해발 650m의 태백에서
겨울 공기가 차가운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
른다.

100m쯤 걸었을까. 돌연 휴대전화 화면에 ‘서
비스 안 됨’이란 안내문이 떴다. 지리산이나 설
악산 깊은 골에서도 통화가 가능했던 휴대전
화가 ‘먹통’이 되는 곳. 검룡소 가는 길에는 그
렇듯 속세와 선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차단
막이라도 설치돼 있는 듯했다.
오원석(47) 태백산 국립공원 검룡소 분소장은
“마음 편하게 쉬러 가는 길인데 잠시 세상과 떨
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길을 따라서는 가지를 앙상하게 드러낸 일본
잎갈나무가 하늘을 향해 도열해 있고, 온통 열
은 잿빛 산에는 연두색이나 노란색 겨우살이
가 드문드문 참나무 꼭대기에 동우리처럼 걸
렸다. 이곳에 일본잎갈나무가 많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탄광을 개발하며 갱목으로 사용하기



1 검룡소와
탐방 덕. 2 검룡소
인근에서 만난
너구리.

위해 빨리 자라는 이 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탓이다. 태백산 국립공원은 일본잎갈나무 대신 한국 수종을 심어 숲을 새롭게 가꿀 예정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 솟아나는 샘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평탄한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20분도 채 안 돼 검룡소 입구에 다다랐다. 계곡으로는 깨끗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지난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태백의 광명 정기 에 솟아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나무 덱 끝에 서서 검룡소를 굽어본다. 깊은 바닥이 흰히 보이는 샘은 멈춘 듯 잔잔하다. 벼랑에서 떨어진 커다란 바위가 샘을 막은 탓이라고 한다. 꿈틀거리며 물이 솟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물줄기는 중단 없이 계속 아래로 향했다.

이곳에서 솟는 물은 금대봉 기슭에 있는 제당궁샘, 고목나무샘, 물구녕석간수 등 샘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모인 것으로,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고 하루 평균 2천~3천가량이 솟는다. 수온도 연중 9도로 일정해 여름에는 선선하



3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4, 5 기암이 즐비한
구문소.
6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고 겨울에는 차갑지 않다.

검룡소에서 넘쳐난 물은 암반에 너비 1m 내외로 팬 홈을 따라 흘러내린다. ‘용틀임폭포’라 불리는 물길에는 초록빛 웅단 같은 이끼도 끼었다. 서해에 살며 용이 되고 싶어 하던 이무기가 한강을 거슬러 여행을 했는데 암반을 오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기다란 홈이 찢어진 전설이 있다. 주변으로 하얀 눈이 제법 쌓여 용틀임폭포의 모습은 살아 있는 용처럼 생생하게 부각됐다.

검룡소에서 출발한 물줄기는 서해를 향해 가며 골지천, 조양강, 동강, 여강으로 이름을 바꾸고,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만나 한강을 이룬다. 산을 휘돌고 평야를 지나 장장 514km를 여행한 물줄기는 김포시 월곶면에서 강을 버리고 비로소 바다에 이른다.

황지 연못에서 구문소까지

낙동강은 태백 시내 변화가 한쪽의 도심 공원에 있는 황지(黃池) 연못에서 시작한다. 연못 앞 표석에는 “낙동강 천삼백리(洛東江 千三百里), 예로부터 시작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못은 상지, 중지, 하지 등 세 개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상지가 발원지다.

동그란 연못의 수면을 보면 기포가 뽀글거린다. 태백산·함백산·매봉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이곳에서 솟아나 황지천을 따라 남쪽으로 흐른다. 연못 둘레에는 인색한 황부자가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이무기로 변했다는 전설을 소재로 한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태백시는 올해 말까지 공원 부지를 확장해 문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이 완공되면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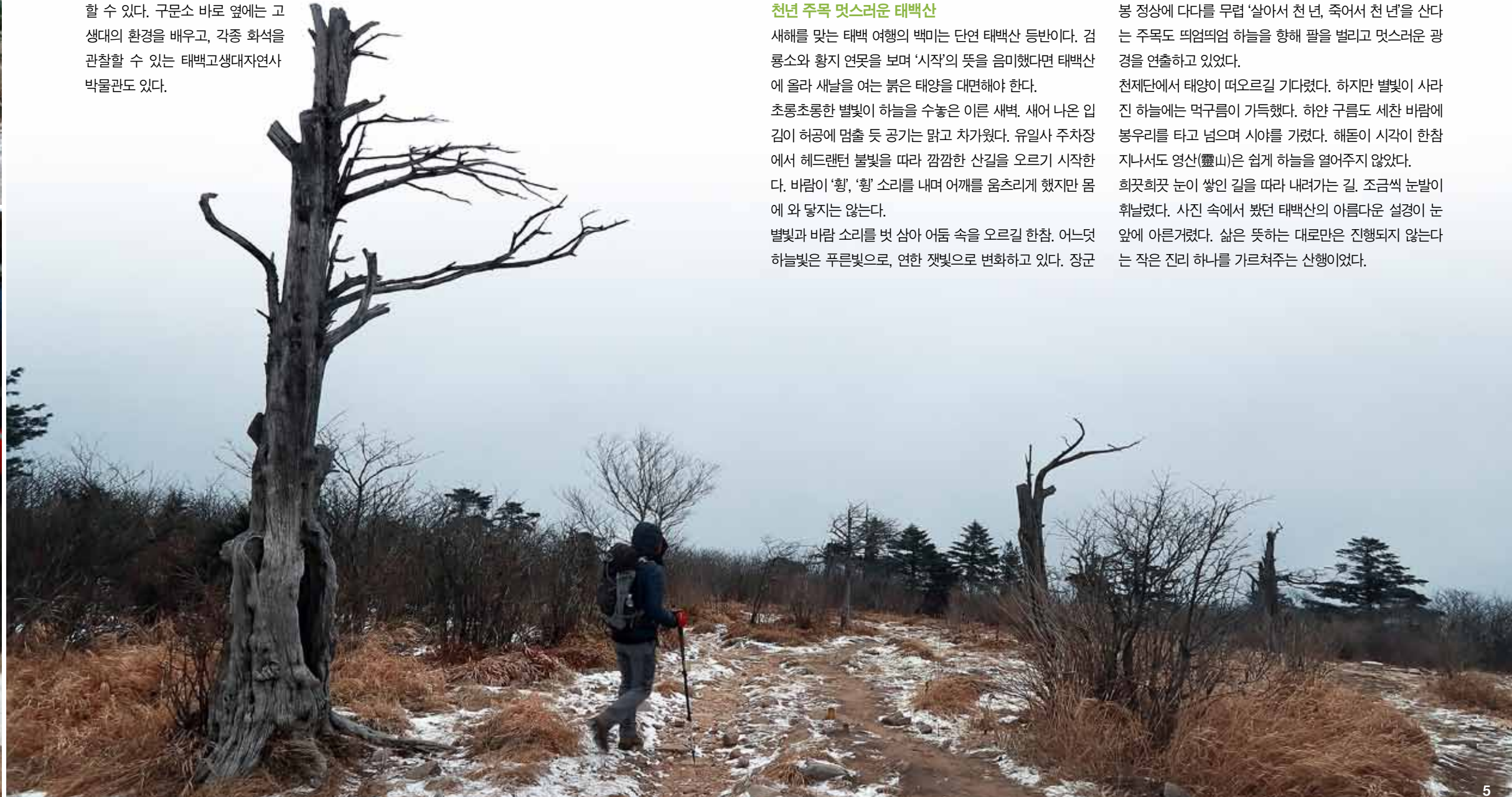
1



2

실개천 같은 물줄기는 태백 시내 남쪽에 있는 구문소(求門沼)에 이르러 물줄기가 천둥소리를 내면서 웅이 꿈틀거리는 듯한 웅장한 계곡이 된다. 구문소는 연화산 자락의 거대한 암벽을 강물이 뚫고 지나며 석문(石門)을 만들고 소(沼)를 형성한 특이한 지형이다. 구문소 위에 자리한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수려한 풍광에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계곡을 따라서는 길이 약 4km의 자연 탐방로가 있다. 탐방로를 거닐면 5억 년 전 고생대 화석과 물결 흔적을 볼 수 있는 지질 여행을 할 수 있다. 구문소 바로 옆에는 고생대의 환경을 배우고, 각종 화석을 관찰할 수 있는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도 있다.



5

1 태백산을 오르는 탐방객. 2 돌탑을 쌓는 방문객. 3, 4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군단. 5 태백산 정상 풍경.



3



4

천년 주목 멋스러운 태백산

새해를 맞는 태백 여행의 백미는 단연 태백산 등반이다. 검룡소와 황지 연못을 보며 '시작'의 뜻을 음미했다면 태백산에 올라 새날을 여는 붉은 태양을 대면해야 한다. 초롱초롱한 별빛이 하늘을 수놓은 이른 새벽, 새어 나온 입김이 허공에 멈출 듯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유일사 주차장에서 헤드랜턴 불빛을 따라 캄캄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황', '황' 소리를 내며 어깨를 움츠리게 했지만 몸 에 와 닿지는 않는다. 별빛과 바람 소리를 벗 삼아 어둠 속을 오르길 한참. 어느덧 하늘빛은 푸른빛으로, 연한 잿빛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군

봉 정상에 다다를 무렵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산다는 주목도 띄엄띄엄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멋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천제단에서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렸다. 하지만 별빛이 사라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하얀 구름도 세찬 바람에 봉우리를 타고 넘으며 시야를 가렸다. 해돋이 시각이 한참 지나서도 영산(靈山)은 쉽게 하늘을 열어주지 않았다. 희끗희끗 눈이 쌓인 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조금씩 눈발이 휘날렸다. 사진 속에서 봤던 태백산의 아름다운 설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삶은 뜻하는 대로만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작은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는 산행이었다.

울진 삶이 꿈틀대는 활기찬 포구

삶이 심심하고 지루하다면 한반도 등하리에 있는 후포항에 가야 한다. 그곳에서는 아침마다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눈부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1

새벽 5시, 경북 울진 후포항에는 대낮처럼 환하게 등이 밝혀졌다. 조명 수십 개를 켜놓은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한다. 어둠을 뚫고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를 떠났다가 만선 깃발을 달고 포구에 돌아온 어선들이 늘어서 밝힌 빛이었다. 갈매기들은 환한 조명에 새벽잠을 설쳤는지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어선 위 창공을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방수 작업복과 장갑, 장화로 중무장한 어부들은 험상궂은 아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어류를 분류해 붉은 색 고무 대야에 담아 옮기느라 쉴 틈이 없다. 차가운 겨울

새벽이지만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하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굴뚝 연기처럼 솟았다. 물고기들은 바닷물 가득한 대야 속을 헤엄치며 펄떡거렸다.

활기 넘치는 해산물 경매 현장

해산물 경매는 준비가 끝난 곳부터 시작됐다. 나란하게 늘 어선 대야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선주와 어부가 자리를 잡고, 다른 한쪽에는 번호가 달린 모자를 쓴 중매인들이 둥그렇게 모여 섰다. 중매인들은 손바닥만 한 직사각형 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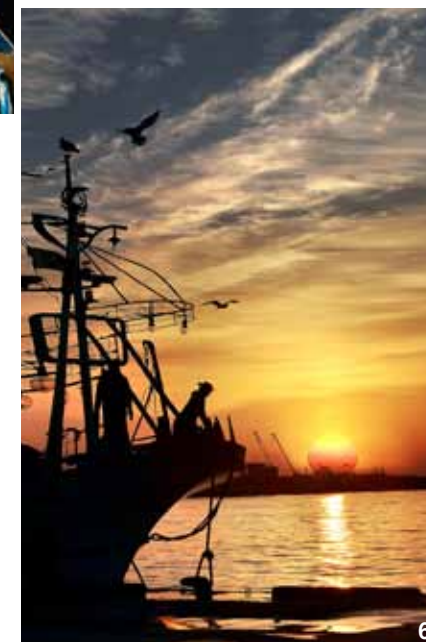
3

1 후포항 새벽 풍경.
2 해산물 경매 모습.
3 경매용 손찰판.
4 가지런하게 진열된 붉은 대게. 5 대게를 나르고 있는 어부들. 6 후포항 해돋이.



4

5



6

판에 시험 답안지 적듯이 손으로 가리며 가격을 적어내고, 경매 진행자는 첩판을 하나씩 확인한 후 가격을 결정한다. 가끔 입담 좋은 경매 진행자와 중매인이 벌이는 승강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

생명력 넘치는 후포항을 구경하다 보면 날이 밝는다.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이글거리는 태양이 항구와 어선과 갈매기를 따스하게 감싼다.

후포항의 명물인 대게 경매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대게는 다리 모양이 대나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게 하면 흔히 영덕을 떠올리지만 사실 대게의 3분의 2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울진 앞바다에서 잡힌다고 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붉은 대게'라고 불리는 홍게가 잡힌다.

배에서 노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옮겨진 게는 일단 크기와 상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게를 분류하는 아주머니들의 재빠른 손놀림은 아무리 봐도神通방통하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온통 시뻘건 게는 뒤집힌 채 10열 6행 단위를 한 묶음으로 위판장 바닥에 진열된다. 흥정이 이어지고 판매가 결정된 게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간다.

경매가 끝나면 어부들은 위판장에 있는 분식집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이나 라면, 커피로 추위를 달래거나 인근 식당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피로를 푼다.

낭만 가득한 해안선 드라이브

후포항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면 후포해변이다. 북적거리며 활기찬 항구의 분위기와는 정반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인적 없는 모래사장에서는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얀 파도는 해안선을 넘실거린다. 잔잔한 바다에는 요트가 유유히 떠다니며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한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기 좋다.

후포항에서 북쪽으로는 7번 국도를 넘나드는 해안도로가

약 50km 떨어진 죽변항까지 이어진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다양한 모습의 기암이 바다를 수놓고 초록빛 싱그러운 솔밭과 새하얀 모래 해변 등 시시각각 다른 매력적인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눈길을 붙드는 어디에나 차를 멈추고 자리를 깔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 되는 길이다.

달빛과 어울리는 술숲이란 뜻만큼이나 멋진 풍광과 낭만을 선사하는 월송정과 관동 최고의 누정인 망양정, 해안 기암이 비경을 펼치고 조그만 포구가 평온함을 전하는 울진항 등 어느 곳 하나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1 후포해변의
평화로운 풍경.
2 죽변항과 후포항을
잇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는 매력적인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



2

3 비경 선사하는
불영사 계곡.
4 불영사 가는 길.
5 불영사 삼층석탑.
6 연못 뒤로 펼쳐지는
불영사 전경.



마음을 비우는 산사 가는 길

망양정 인근에서 36번 국도로 접어들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이 이어지는 수려한 풍광이 펼쳐진다. 근남면 행곡리에서 금강송면 하월리까지 15km에 이르는 불영사 계곡길이다. 이미 1979년에 명승 제6호로 지정된 곳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든다.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없어 차창 밖으로 지꾸만 지나쳐가는 비경이 못내 안타까운 구간이다. 물론 불영정, 선유정 등 전망대에서는 잠시 멈춰 불영사 계곡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불영사 계곡길이 태백산맥을 넘기 직전 오른쪽 도로로 빠지면 불영사(佛影寺)로 이어진다. 사찰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일주문을 들어서면 이내 향긋한 소나무 향이 콧속을 은은하게 파고든다. 술숲에는 느릿느릿 걸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명상의 길도 있다. 산사 가는 길은 불영사 계곡만큼이나 풍경도 수려하다.

1km쯤 걸었을까. 천축산 발치에 포근하게 안긴 불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조경이 아름다운 사찰이다. 651년(진덕여왕 5년) 의상대사가 연못에 있는 용 아홉 마리를 쫓아낸 후 절을 짓고, 부처 모양 바위가 못에 비쳐 불영사라 불렀다고 한다. 천축산도 서역의 천축산과 비슷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커다란 연못 주변에 목어와 법고가 있는 법영루가 자리하고, 오른쪽으로 설법전과 대웅전이 있다. 겨울을 맞아 설법전 처마에는 메주가 달렸다. 대웅전 마당에는 균형이 잘 잡힌 고려 시대 삼층석탑이 서 있고, 대웅전 안쪽 벽에는 부처가 인도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조선 후기의 영산회상도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불영사의 백미는 연못 서쪽 끝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호를 그리는 잔잔한 연못 뒤로 대웅전과 요사채 등이 둘러섰고, 소나무 숲과 산줄기가 감싼 평온한 풍광이 연못의 수면처럼 마음을 명징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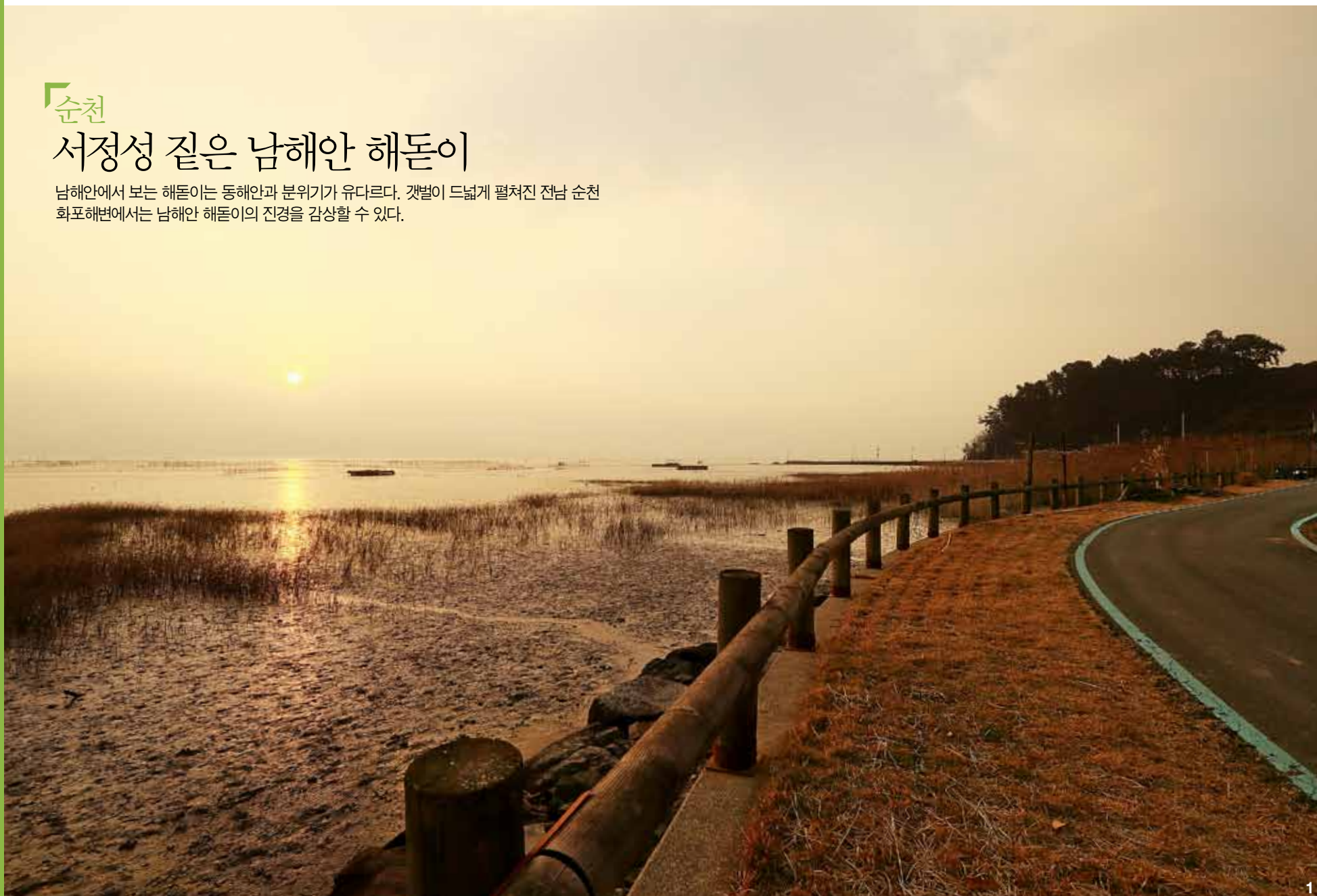


6

순천

서정성 짙은 남해안 해돋이

남해안에서 보는 해돋이는 동해안과 분위기가 유다르다.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전남 순천 화포 해변에서는 남해안 해돋이의 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새벽녘 순천만은 희뿌연 유리창을 끼운 듯 안개가 자욱했다. 남쪽으로 고개를 뺄수록 내민 별랑면 화포 선착장에 는 조그만 어선이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있었다.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바다. 뒤쪽으로 멀리 늘어선 봉우리 들이 희미하게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가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우스꽝스러운 물새 울음소리가 평온함을 깨고 미소를 짓게 했다. '서정적'이란 단어가 꼭 어울리는 풍경이다.

자연이 합주한 화포해변 일출

사위가 천천히,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하늘에 뜬 구름이 돌연 연한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하늘빛이 노랑, 주황, 황금빛으로 변하면 수면도, 갯벌도 빛깔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동쪽 산봉우리 위를 뒤덮은 안개 같은 구름 사이로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 물새들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붉은 기운을 향해 가며 너울너울 춤을 춘다. 동해안 해돋이가 수평선 너머로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

에 초점이 맞춰진 독주화라면, 남해안 해돋이는 이렇듯 하늘, 구름, 바다, 갯벌, 안개, 물새가 합작하는 오케스트라 무대이다.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는 한낮처럼 밝아진다. 갈대밭 너머로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화포해변 북쪽 해안로를 따라서는 갯벌에 모여든 물새들이 맑고 고운 울음소리로 새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순천만에서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해질 녘 화포해변 맞은편에 있는 와온해변에 가면 바다를 뿔강게 태우며 술섬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을 마주할 수 있다.

숨 막히는 갈대 바다에 취하다

겨울철 순천만은 하얗게 펼쳐진 갈대밭을 거닐며 낭만을 만끽하고 사색하기 좋은 곳이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순천과 고흥, 여수에 걸쳐 있다. 특히 순천만은 갈대가 어른 키 높이로 자라는 가을과 겨울이 여행 최적기이다. 동천을 가로지르는 무진교에 올라서자 진한 황토 빛갈 갈대 바다가 펼쳐진다. “아,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저절로 새어 나오는 풍경이다. 탐방로를 따라가자 순천만을 지나는

1, 2 순천만 화포해변 해돋이.
3 갯벌을 거니는 흑두루미. 4 화포해변 선착장 인근에 서 있는 소망탑.



1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 풍경, 2 갈대 바다를 걷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3 용산전망대, 4 순천문학관에 있는 정채봉 전시관, 5 와온해변에서 보는 황홀한 해넘이.



풍경을 만들어 낸다. 무진교에서 북쪽으로 독길을 따라 15분 정도를 걸으면 순천문학관이 있다. 독길을 천천히 걸으면 소설 속 주인공이 거닐었을 것 같은 풍경 속을 지나는 기분이 든다. 순천문학관에는 이곳 출신 김승옥과 '초승달과 밤배', '오세암'으로 유명한 동화작가 고(故) 정채봉의 문학관이 마련돼 있다. 내부에는 두 문인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육필 원고와 사진, 유품, 소설책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김승옥 문학관에서는 '영자의 전성시대', '안개', '태양을 흠친 여자' 등 그가 각색한 영화의 포스터도 볼 수 있다. 김승옥 문학관 입구에 "소설가란 스스로 '이것이 문제다.'고 생각하는 것에 봉사해야지 어느 무엇에도 구속당해서는 안 된다.(중략)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다만 스스로의 가치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것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글귀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준다. ▼



겨울바람에 갈대 바다에는 파도가 일고, 갈대는 서로 몸을 부대끼며 한여름 소낙비 같은 소리를 낸다. 갈대가 빛은 소리는 바람 소리, 물새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한 곡의 교향악을 완성한다. 하늘에서는 술개 대여섯 마리가 열레에 연결된 연처럼 부드럽게 바람을 타고 넘는다. 탐방로 끝에서 향긋한 소나무 향기가 퍼지는 오르막을 20여 분 가면 용산전망대이다. 그곳에 서면 순천만 갈대밭과 갯벌, 바다 등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스런 풍경이 발아래 펼쳐진다. 동천이 바다로 유입하며 만들어낸 유려한 S 자 물

길, 종류별로 웅기종기 모여 쉬거나 거니는 물새도 관찰할 수 있다.

문학적 감성 가득한 독길

순천만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진'.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가상 도시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김승옥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고 했다. 순천만의 아침은 안개가 부유하는 몽환적인

INFORMATION



태백, 울진, 순천은 새해를 맞이하는 장소로 그만이다. 새날 새로 고개를 내민 태양을 보러 가는 길에 둘러볼 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 둘러볼 곳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철암역 주변은 정부가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 번성한 지역이다. 철암탄광역사촌은 허름한 탄광촌 주거 시설을 역사·문화 시설로 복원한 박물관이자 전시장이다. 광부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고, 각종 미술품도 감상할 수 있다. 철암역에는 광산에서 실어온 원탄을 저장·운반하고, 무연탄을 분류하는 국내 최초 무연탄 선탄 시설인 철암역두선탄장(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이 있다. 이곳에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촬영됐다.



‘태양의 후에’ 세트장

통동 일대에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에’ 촬영지이다. 태백시가 옛 한보탄광 부지에 지난해 4월 총 2억7천만 원을 들여 메디 큐브, 군 막사, 무너진 우르크 발전소, 포토존, 매점 등을 갖췄다. 올해 5월에는 공연장, 쉼터, 놀이·운동 시설, 모형 세트장, 드라마 관련 시설물로 구성되는 ‘태양의 후에 공원’도 문을 연다. 소리, 영상, 안개 조명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도 선사할 예정이다.



365세이프타운

풍수해와 지진, 설해, 산불, 테러 등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 체험 테마파크다. 곤돌라로 이어지는 3개 지구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챌린지월드, 강원도소방학교가 들어서 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서 방문객은 각종 재난 상황을 첨단 시설을 통해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다. 챌린지월드에는 트리트랙, 플라잉폭스, 파워맨 등 야외 체험 시설이 있다. 또 항공기 화재 진압, 수난 구조 등 특수 훈련 시설이 있는 강원도소방학교에서는 응급처치와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33-550-3101

울진

1 덕구온천과 백암온천

덕구온천(☎ 054-782-0677)은 응봉산 중턱에서 자연 용출한 수온 43도의 약알칼리성 온천이다. 온천수는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천탕이 있으며 보디 마사지, 아쿠아 포켓, 재스민 탕을 갖춘 스파 시설도 있다. 백암온천(☎ 054-789-5480)은 무색무취한 53도 온천수로 만성 피부염, 자궁내막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1 순천드라마촬영장

1960년대 순천 읍내, 19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 1980년대 서울 번두리를 돌아보며 추억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장소다. 서울 번두리에는 다실과 바, 당구장, 미용실, 구두 수선방, 영화관 등이 있고, 순천 읍내에는 약방과 식당, 양복점, 전당포, 사진관 등이 있다. 달동네에 빼곡하게 들어선 허름한 집과 녹슨 아궁이와 연탄 등도 볼 수 있다. 드라마 ‘사랑의 야망’·‘에멘의 동쪽’·‘제빵왕 김탁구’·‘자이언트’·‘빛과 그림자’·‘감격시대’, 영화 ‘늑대소년’·‘인간중독’·‘강남1970’·‘허삼관’ 등이 촬영됐다. 문의 ☎ 061-749-4003

2 낙안읍성

낙안면에 있는 조선 전기의 읍성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조선 시대 읍성 중 하나이다. 읍성 안에는 실제 주민이 사는 초가집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방문객은 짬뽕 공예, 길쌈, 대장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동헌과 객사도 볼 수 있다. 길이 약 1.4km 성벽 위를 걸으며 읍성을 바라볼 수도 있다. 문의 ☎ 061-749-8831

3 송광사

조계산 자락에 있는 송광사는 훌륭한 스님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사찰이다. 보조국사 지눌이 여생을 보낸 곳이자, 2010년 입적한 범정 스님의 다비식이 진행된 곳이다. 날렵한 기와지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보조국사의 사리탑이 있고, 성보박물관에는 보조국사가 목욕할 때 사용했다는 종려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 등이 전시돼 있다. 사찰의 모습이 정적(靜寂)하고 미려하다.

2 성류굴

천연기념물 155호인 성류굴은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 성불(成佛)이 머물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석회암의 형상이 금강산을 보는 듯해 ‘지하 금강’이라 불리기도 한다. 총연장 870m이고 내부 온도가 15~17도로 연중 일정해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좋다. 종유석, 석순, 석주, 동굴진주, 석화, 동굴산호, 동굴방패 등 다양한 생생물이 신비감을 준다. 문의 ☎ 054-789-5400

3 망양정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팔경’에 소개된 정자로, 고려 시대에 처음 세워져 이후 수차례 중수와 개보수를 거쳤다. 조선 숙종은 관동팔경 중 최고라며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란 친필 편액을 하사했다. 숙종과 정조가 지은 어제시(御製詩),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조선 전기 문신인 채수의 ‘망양정기’ 등이 전해진다. 망양정해수욕장 남쪽의 동해를 굽어볼 수 있는 언덕에 서 있어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

▶ 겨울 축제



【 태백산 눈축제 】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태백산에서는 환상의 눈축제가 펼쳐진다. 당골광장에는 국내외 눈 조각가가 선보이는 대형 눈 조각 작품이 들어서고, 눈꽃 터널, 눈 미끄럼틀, 스노 래프팅 등이 있는 놀이동산이 설치된다. 또 황지연못 일대에서는 환상적인 빛과 얼음의 축제가 진행된다. 닥터피시 족욕탕, 눈썰매 타기, 시베리안 허스키 개썰매 타기 등 체험 거리도 마련된다.

【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



오는 3월 초에 대게를 주제로 한 축제가 후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운영, 세계 대게 요리 시연과 전시, 대게 잡이 참관, 선상 일출 등 특별 행사가 마련된다. 대게 두껍 소원 빌기, 때배 노 젓기 체험, 대게 무료시식, 전통주 시음 등 체험 행사도 준비된다.